

신기루는 힘이 세다



글 | 김형중

《사막에서 사는 법 7》(이하 소설제목은 번호로만 표시)이야기다. 어느 소음, 귀가 떨어져 나갈 듯 추운 날씨가. 한 장년의 사내가 입성과 어울리지 않게 오래되고 비좁고 초라한 카페에 들어선다. 예뻐 것도 없고 차린 것도 없는 주인 마담이 그를 맞는다. 왜 장사를 그만두지 않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카페엔 손이 들지 않고 있다. 두 사람의 몇 마디 대화만 엿듣고 나면, 그 장년의 사내 역시 각박한 샐러리맨 생활에 이력이 날대로 난, 게다가 그 자리마저 언제 떨어날지 모르는 신세라는 사실이 이내 밝혀진다. 말하자면 주인 마담과 손님 둘 다 사막 같은 삶을 산다. 이 점 다른 작품들의 주인공들도 마찬가지다. <1>의 화자는 어릴 적 부모를 여윈 고아로, 사람들간의 관계에 대해 아무런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건조한 성격의 소유자다. 그의 시각에 포착된 '고모'와 '아우님'은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평생을 티격태격 싸우며 살아온 노년의 아낙들이다. 그들이 살았을 삶이 사막만 못하지 않았으리란 사실은 쉽사리 짐작이 간다. <2>의 송이아빠와 중년 여인의 남편은 사업에 실패해 쫓겨 다니거나, 스스로 삭막한 경제인

들의 세계를 떠났다. <3>의 사장님은 아내의 우울증과 사업의 부진으로 말할 데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더 나열할 필요도 없이, 이 소설집의 전체 인물들은 모두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해 본 자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자들이다. 소설 제목이 '사막에서 사는 법'인 이유가 밝혀진다. 작가 이선의 시선이 우리 사회의 가장 불운한 자들에게로 향해 있는 한, 그들의 삶은 곧 '사막'의 삶이다.

다시 <7>의 줄거리. 장년의 사내와 마담의 대화가 시작된다. 다른 손님은 더 이상 들지 않는다. 소설이 끝날 때까지 등장인물은 단지 이 두 사람으로 제한된다. 다른 작품들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소설집의 전체 작품들의 등장인물들은 많아야 한 가족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 가장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게 <7>이지만 그 역시 한 가족에 불과하다. 작가는 과욕을 부리는 법이 없다. 가급적 적은 수의 인물들을 등장시켜, 그들의 사막 같은 삶의 단면을 현미경적으로 포착하기, 그것만이 이선의 관심사다. 그로 인해 소설들은 편안함과 단아한 구성을 얻지만, 대신 문체의 식은 현대사회의 보편적 문제들로까지 확대되지 못한다. 그들의 사막은 한국사회 전체의 사막에 대한 전형도 후기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의 모델도 되지 않는다. 이선 소설이 비판받을 수 있는 점이 있다면 바로 여기겠다.

장년의 사내와 마담의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대화 밖의 지문이나 배경 묘사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소설은 오로지 두 사람의 대사만으로 이루어진다. 이선의 모든 작품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이선의 모든 작품들이 다 그런 '셈'이다. 왜냐하면 이선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이 바로 그 구어체 대사들이기 때문이다. 이 대사들이 가진 매력이 이선을 가장 이선답게 한다. <1>의 아우님과 고모님이 나누는 애증의



《사막에서 사는 법》이선 지음 | 민음사 | 258쪽 | 값 9,000원

이 글을 쓴 김형중은

전남대 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2000년 문학동네신인상에 평론 〈세 겹의 저주 - 최윤, '저기 소리 없이 한점 꽃잎이 지고'〉

다시 읽기)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저서로 《소설과 정신분석》 《켄타우로스의 비평》 등이 있으며 현재 계간 〈문예중앙〉 편집동인으로 있다.

대사들, 〈2〉의 송이 아빠와 우연히 만난 중년 여자의 선문답 같은 대사들, 〈5〉의 미미 엄마가 이삿짐센터 직원에게 퍼붓는 욕담들, 〈6〉에서 청양택의 오줌 냄새를 피해 방으로 달아난 식구들이 고스톱을 치면서 뺄어내는 노인네에 대한 험담들은 모두 이 소설집의 압권에 해당한다. 구수한 입말에, 삶의 연륜과 지혜가 묻어나는 독설과 역설들, 때론 선문답 같기도 하고 때론 밑바닥 인생들의 한이 담긴 것 같기도 한 그 대사들은 별다른 소설적 장치의 도움 없이도 소설의 서사를 이끌어가고, 흥미와 긴장감을 유지시키고, 그리고는 '사막'을 오래 견뎌온 자들의 묵은 지혜를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파한다. 이선 문학의 가장 큰 장점이자, 이즈음의 감각과 신예작가들이 배워야 할 점이기도 하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전환점을 맞는다. 마담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 사람은 이 카페가 아직 다방이던 시절 마담이었던 여인의 이야기다. 그녀는 연극배우를 사랑했다. 아무런 결실도 없었지만 오래 그녀는 그 배우의 연극 〈갈매기〉를 사막을 살아가는 지표로 삼았다. 카페 이름이 '갈매기'가 된, 아니 '갈매기'로 남아 있는 이유다. 다른 한 사람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다. 왜 아직도 그녀는 이 손님 없는 카페를 지키는가? 오래 전의 한 손님 때문이다. 티켓을 끊어 자신을 '다복 여관'에 불러 들여 놓고, 손 한 번 대지 않고 편한 잠을 자도록 배려해 준 손님, 앉아 잠든 자신을 곱게 눕혀 놓고 자신은 여관 주인에게 화대까지 맡겨두고 갔던 이름모를 한 손님을 기다리느라 카페에서 늙고 말았단다.

그러고 나니 이제 손님의 이야기다. 자신의 친구 이야기인 척 하지만 물론 자기 이야기다. 출장차 어느 소읍에 들른 친구, 동네 다방에서 티켓을 끊어 여자 하나를 샀는데, 방에 들여 놓고 잠시 다른 일을 하다보니 그 여자가 졸더라. 모양새를 보니 위

낙에 예뻐 것도 없는 데다, 발뒤꿈치에 먼지마저 묻히고 있더라. 음심이 달아나 밀어뜨려 눕혀놓고 다음날 그냥 나가고 말았다는 게 이야기의 끝이다.

그렇다면 마담이 내내 간직해 온 그 손님에 대한 기억은 무엇이 되는가? 물론 신기루가 된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손님은 미화되고 이상화되었다. 손님은 그저 그녀가 추해서 떠난 것이었으니. 그녀의 기다림은 한갓 '신기루'였다. 그녀가 내내 기다리며 살아온 그 손님의 이미지란 게 다 신기루였다. 그런데 그녀는 소설 말미, 왜 이런 말을 하나?

“물론 손님이 아니라 손님 친구 이야기였죠. 알아요. 손님은 절대로 그날 그 손님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럼요, 절대로 아니지요. 손님이 아닌 줄 잘 알고 있어요. 아직 그 손님을 만나지 못해야 하는데, 절대로 그 손님이 아니지요. 아무렴, 아니지요. 자, 손님, 이제 그만 일어나실래요?” (211쪽)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과 같다고 했다. 마담은 이제 그 손님이 바로 이 손님임을 아는데, 왜 그토록 강하게 부인하는가? 상상해보자. 누군가 사막을 걷고 있다. 물도 없고 그늘도 없다. 더더구나 그 사막은 죽기 전까지는 헤어 나오기 힘들 만큼 넓고 멀다. 우리 인생이 그렇듯. 그럴 때 무엇이 그 사막을 견디게 하는 것일까? 신기루가 아니겠는가? 〈1〉의 아우님과 고모가 평생 간직하고 살았던 남편이라는 신기루, 〈3〉의 사장과 선화가 평생 간직한 그 옛 사랑이라는 신기루, 오줌소태 병이 걸려 오줌을 지리고 그로 인해 동네 거지보다 못한 취급을 가족들로부터 받으면서도 〈6〉의 청양택으로 하여금 목숨을 놓지 못하게 만들었던 '자손'이라는 신기루. 물론 그것들이 신기루인 한에서 그것들은 모두 허위이거나 망상에 가깝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지나간 사막과 같아서, 죽음이 아니고서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면, 그때 신기루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 그러니 이선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사막에서 사는 법' 그것은 각자 신기루 하나씩이라도 만들어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다. 주의하자, 절대 '사막을 벗어나는 법'이 아니다. **김형중**